

FOCUS

레미콘품질관리지침 시행, 레미콘업계에 큰 부담

건설교통부는 일부언론에 보도된 불량레미콘을 근절키 위한 방안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에 근거한 레미콘품질관리지침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미콘업체의 레미콘 품질관리에 대한 비상이 걸렸으며, 이로인한 업계의 이중 부담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지침에서 건설현장에 불량레미콘이 반입되지 않도록 감리원과 시공자가 분기별 1회이상 레미콘공장을 직접 방문, 점검토록 의무화했으며, 레미콘의 반입전후 강도,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 함량시험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품된 레미콘이 타 현장에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미콘공장장, 믹서트럭운전자의 서명확인과 함께 건설현장 감리원이 이를 확인토록 했다.

이와같은 지침 발표에 따라 레미콘업계는 이에 대한 검토 회의를 거쳐 업계의 이중부담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보다 레미콘업체에 부담만 안겨주는 이 지침에 대해 개정 건의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지침으로 인해 레미콘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 감리자의 업무부담을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레미콘의 품질관리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레미콘은 KS제도 도입후 공정관리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불합격 판정나면 KS 표시허가 정지 및 사후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레미콘품질관리지침을 만들어 규제한다는 것은 레미콘산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침의 운용이 명실상부한 역할을 나타낼지 아님 애물단지로 기업의 부담만 초래할지 두고볼 일이다.

한일시멘트 드라이몰탈 ISO 인증

드라이몰탈 제품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한일시멘트(대표 정환진)는 지난 6월 29일 국내 처음으로 드라이몰탈 제품의 설계와 개발, 생산 및 서비스 등 전분야에 걸쳐 ISO900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은 곳은 한일시멘트의 드라이몰탈 생산공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천공장으로 지난 91년부터 드라이몰탈을 생산하기 시작했으

며 연간 105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인천공장과 함께 연간 총 205만톤 규모의 드라이몰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생산중인 '레미탈'은 국내 드라이몰탈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용도별로 생산이 가능한 드라이몰탈 제품의 특성에 따라 34가지의 드라이몰탈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10여가지 이상의 특수용도 제품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게가 1.5kg에 불과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가정용 제품도 조만간 대형 할인점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플라이애쉬 사용량 증가

레미콘생산업체의 플라이애쉬 및 스톱그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플라이애쉬가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레미콘업체들의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다변화를 위해 콘크리트의 품질향상은 물론 원가절감방안으로 콘크리트 혼화제인 플라이애쉬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소의 플라이애쉬 생산량의 감소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올들어 플라이애쉬의 사용량이 늘고 있는 추세는 과거 플라이애쉬를 사용하지 않던 업체가 레미콘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측면의 많은 이점으로 신규 사용업체가 늘어났으며, 또한 시멘트 및 골재의 가격 상승으로 각 업체마다 원가절감을 감안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플라이애쉬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서 레미콘에 사용되는 플라이애쉬는 정제를 거쳐 그 기준에 적합한 플라이애

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주로 보령, 태안, 삼천포, 하동 등에서 나오는 플라이애쉬가 금년들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의 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정제공장의 제품 생산량이 감소한데 따라 플라이애쉬의 구득난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발전소의 플라이애쉬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화력발전소들이 발화율이 높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공급된 플라이애쉬량은 151만톤으로 추정되며, 금년에는 180만톤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발전소의 플라이애쉬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올 공급량도 작년수준에 그치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콘크리트제조시 플라이애쉬를 혼입해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팽창·수축을 적게하고 장기강도를 증진시켜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어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의 사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경기 선행지표 호조

지난 7월 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중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 185개 건설관련 기술서비스업체들의 생산활동(부가가치 기준)은 작년 동월보다 12.2% 증가해 향후 건설경기 전망의 청신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관련 설계서비스활동은 지난 1월에 0.2%, 2월 0.4% 증가에 그치다가 3월에 5.7%로 탄력을 받는데 이어 4월에 11.1%가 늘어나는 등 2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관련 설계서비스활동이 활기를 보인 것은 정부의 조기발주 방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발주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관련 서비스활동 증감을 추이〉

(전년동월(기)비, %)

구 분	2001.1월	2월	3월	4월	5월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타기술서비스업	0.2	0.4	5.7	11.1	12.2

올들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던 건축허가면적도 지난 5월을 고비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5월중 건축허가면적은 866만5천㎡로 작년 동월에 비해 56%가 늘었다.

건축 허가면적은 지난 1월에 4.8%가 줄어든데 이어 2월에 29.5%, 3월에 29.5%, 4월에 17.6%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5개월만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건축허가면적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그동안 침체됐던 주택부문이 큰 폭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주거용의 경우 419만4천㎡를 기록, 72.2%가 늘어 민간의 투자심리가 점차 살아날 기미를 반영하고 있다.

또 상업용은 220만2천㎡로 38.6%, 공업용은 120만9천㎡로 46.2%, 기타는 106만㎡로 51%가 각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하반기 전망을 통해 건설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겠지만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 등으로 다소 호전되며 3.7%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기별로는 3·4분기에 3.5%, 4·4분기에 3.9%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탄력이 볼

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건물투자의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임대주택공급확대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며 회복움직임이 뚜렷해 질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 및 주택 리콜 권고제 시행

아파트 및 주택을 포함한 상품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된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5일이 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7월 3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리콜관련 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개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제품의 범위에선 소비자생활과 관련돼 있는 아파트 등 주택을 포함하여 리콜이 실시되더라도 교환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하자보수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설계용역도 포함되며, 제품인 주택 등 구조물의 결함에 따라 설계자와 건설업체간에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리콜 권고제도가 도입돼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도지사

〈건축 허가면적〉

(단위 : 천㎡, %는 전년동월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건축허가면적	5,203(2.7)	4,584(-4.8)	5,846(-29.5)	7,663(-17.6)	8,665(56)	
용도별	주거용	2,119	1,567	2,780	3,700	4,194
	상업용	1,036	1,235	1,560	2,062	2,203
	공업용	1,543	1,078	912	991	1,208
	기 타	505	705	595	910	1,060

게 리콜 실시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리콜을 거부할 경우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공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리콜명령제도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일반 리콜명령과 긴급 리콜명령으로 구분, 시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건설투자 소폭 증가 전망

한국은행이 지난 6월 21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았으며, 내용으로 건설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겠지만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 등으로 다소 호전되며, 3.7%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상반기 추정치인 2.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외환위기에 접어든 이후 4년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시기별로 1/4분기 1.4%, 2/4분기 2.9%, 3/4분기 3.5%, 4/4분기 3.9%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탄력이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건물투자의 경우 미분양아파트의 감소 등 회복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접어들어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며 회복움직임이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축에 비해 토목은 인천국제공항, 월드컵 경기장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전히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97년의 80%대에 그치고 있어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할 것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한편 우리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돼 당분간 부진하다가 4/4분기부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5% 수준으로 높아져 연간성장률은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시정시 과징금 50% 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을 채택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체적으로 시정하면 공정위 조사를 면제해주는 한편, 과징금도 50% 이상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 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 선포식'에 참석해, "기업들의 공정거래 질서 자율 준수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경제전망〉

(전년동기 대비, %)

	2000년				2001년						
	3/4	4/4	하반	연간	1/4	2/4	3/4	4/4	상반	하반	연간
GDP성장률	9.2	4.6	6.8	8.8	3.7	3.3	3.0	5.1	3.5	4.1	3.8
민간소비	5.7	3.2	4.5	7.1	0.9	1.1	2.3	3.0	1.0	2.7	1.8
설비투자	31.9	8.1	19.6	34.3	-7.9	-5.3	1.1	11.8	-6.6	6.1	-0.5
건설투자	-3.5	-2.5	-3.0	-4.1	1.4	2.9	3.5	3.9	2.3	3.7	3.1
상품수출	25.2	18.9	21.9	24.2	8.5	3.4	2.9	7.3	5.8	5.1	5.5
상품수입	21.6	8.5	14.6	21.1	-1.0	-6.8	-2.6	6.7	-3.9	2.1	-0.9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등 관련 법규를 고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기업 스스로 자율준수 규범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할 경우, 공정위 조사 대상에서 제

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행위를 자체적으로 시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50% 이상을, 자율준수 규범을 실효성 있게 운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20~30%를 깎아줄 방침이다.

